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第100輯

경남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부지 문화유적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200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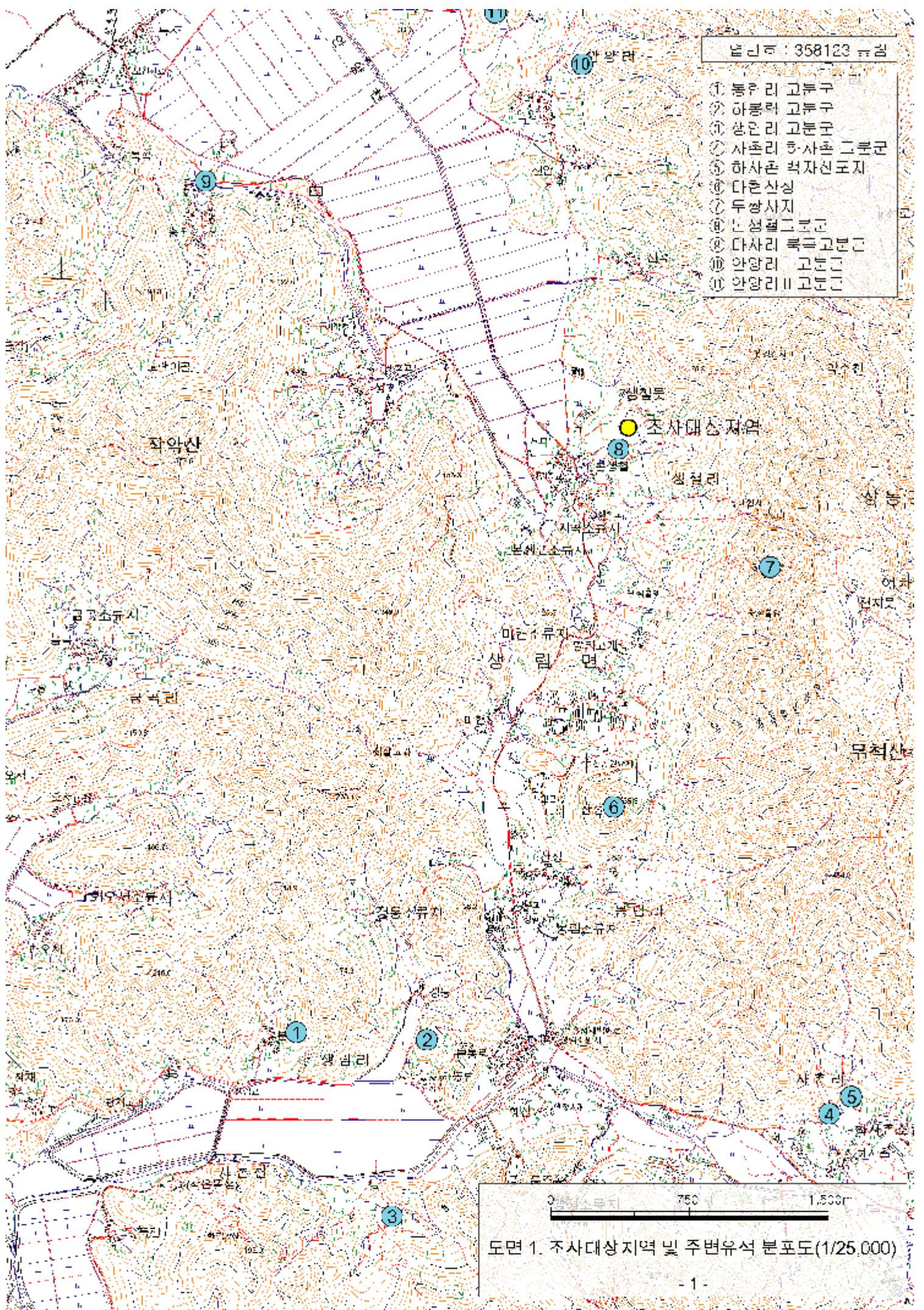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法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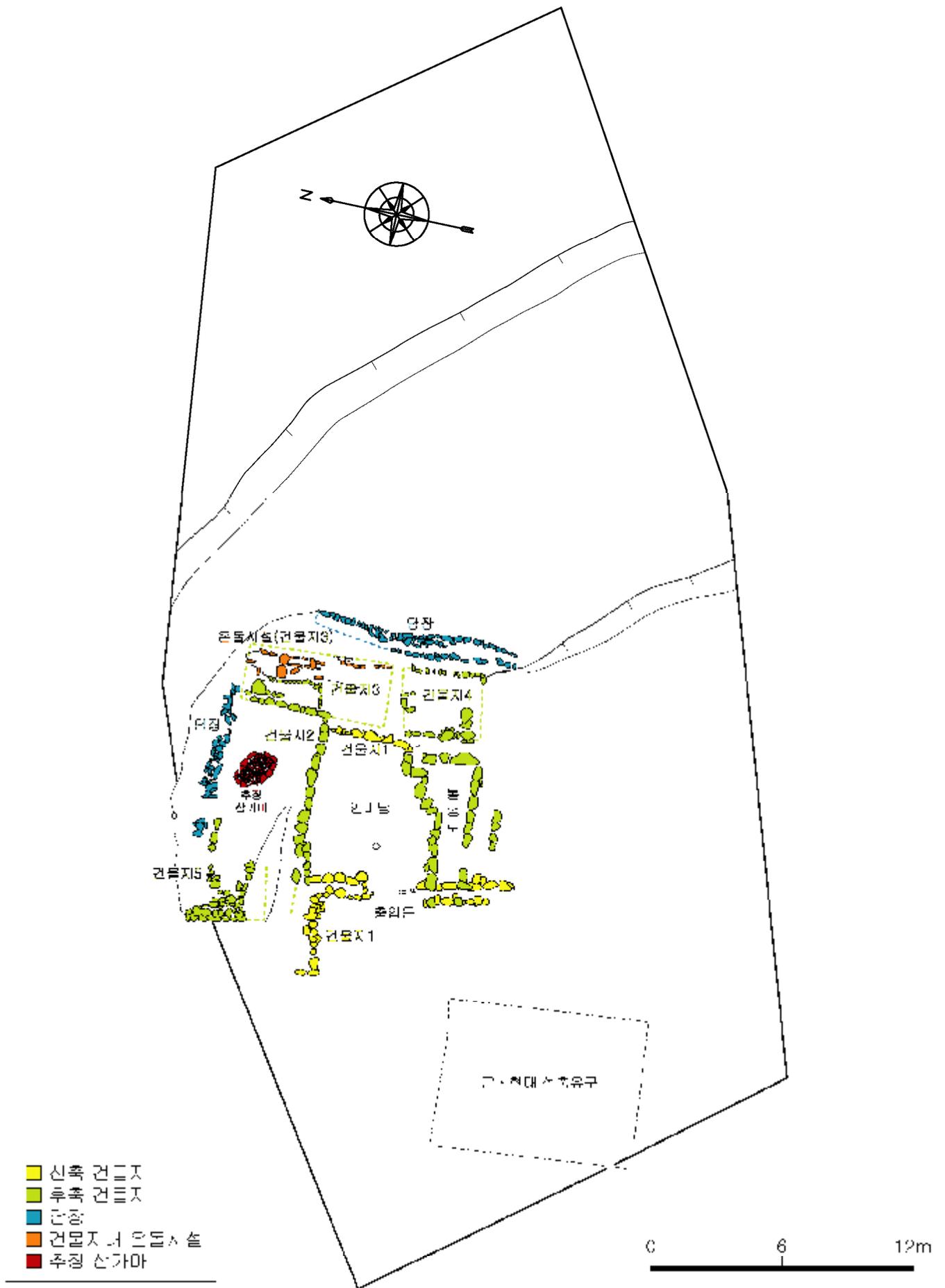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엽리호 : 358123 1:25,000

- ① 동부리 고분군
- ② 하봉리 고분군
- ③ 상촌리 고분군
- ④ 사촌리 하사촌 2분군
- ⑤ 하사촌 석자신도지
- ⑥ 다촌산성
- ⑦ 두왕사지
- ⑧ 논성철 2분군
- ⑨ 다사리 북동고분군
- ⑩ 안양리 고분군
- ⑪ 안양리Ⅱ 고분군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유구배치도(S=1/240)

I. 조사개요

1. 조사명

경남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2.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

조사대상 지역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번지 일원

조사대상 면적 : 총 1,220m²(약 369평)

3. 조사기간

2007. 7. 11 ~ 2007. 9. 08

4. 조사기관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5. 조사단 구성

조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지 도 위 원 : 임효택(동의대학교 교수, 도문화재위원)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이동주(동아대학교 교수)

책임조사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사보조원 : 황은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현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헌철(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 기관

경상남도 교육청

II.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번지 일원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경남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부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역은 1998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행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채집되어 이와 관련된 매장유구나 생활유구의 분포 가능성이 크므로 ‘본생철고분군’으로 명명한 곳이다. 이어 2006년 우리 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본생철고분군과 안골유물산포지 등 2개소에서 삼국시대 경질토기편과 연질토기편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도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상기 지역은 공사에 앞서 우리 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트렌치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 소토, 도기편, 자기편, 기와편, 유리질화된 벽체편 등이 출토되어 소성과 관련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유적의 성격파악을 위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련원 공사에 앞서 우리 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우리 연구원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와 성격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III. 조사대상지역의 개관 및 주변의 문화유적

1. 조사대상지역 개관

지리적으로 생림면은 김해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상동면, 남쪽으로는 북부동, 서쪽으로는 한림면, 북쪽은 낙동강을 두고 밀양 삼랑진과 양산의 원동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의 북서쪽은 낙동강의 배후습지로 지금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북쪽이 개방된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산지 사이에서 발원한 소하천(小河川)이 북류하여 낙동강에 합류한다. 해발 702.5m의 무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5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주산업은 농업으로 북쪽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쌀·보리와 딸기를 포함한 과일재배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지를 개간하여 한우·돈·양계업 등 축산업도 성행하고 있다. 생림면 북쪽 경계를 이루는 낙동강의 범람으로 발달된 충적지인 도요리·마사리 일대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교통망은 밀양~김해간 국도 58호선이 중앙을 지나고 있으며, 대동~대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향후 교통의 요충지로서 현재 공업지대가 형성되는 등 점진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 9개의 리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49.94km²이며, 인

구는 5,187명(2006년)이다. 생림면 봉림리에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때 축조된 것으로 전하는 마현산성을 비롯하여 가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과 유물, 생림리에 있는 삼국시대 고분 등을 통해 볼 때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주변의 문화유적

1) 봉림리 고분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소재하며, 직경 약 **8m**, 봉분 높이 약 **3m**의 규모를 지닌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추정되나, 현재 지형변화로 없어진 유적이다.

2) 사촌리 하사촌 고분군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봉림면에서 남쪽으로 약 **2km** 정도 가면 하사촌이라는 표비석이 보인다. 이 표비석 앞에 난 마을 진입로를 따라 위쪽으로 가면 작은 계곡이 있고 계곡 양 옆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마을에서부터 과수원까지 회청색 경질토기 파편들이 흩어져있다. 아마도 이 마을과 주변의 구릉과 야산 일대가 고분군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채집된 토기편들은 주로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고, 그 외 고려시대의 것도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고려, 조선시대의 도요지가 있다.

3) 사촌리 하사촌 백자산포지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유적은 사촌리 하사촌 고분군의 동북쪽 하사촌마을에 위치한다. 현재 감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고, 과수원을 중심으로 백자편이 채집되고 있는데 유구는 파괴된 듯 하다. 채집유물로 보아 백자요지라고 생각된다.

4) 생림리 고분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산 **190**번지

이 고분군은 하봉을 가운데 두고 하봉리고분군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 봉토 높이 약 **2.5m**, 직경 약 **10m** 크기의 고분 **1**기가 생림리에 위치한다. 시대는 알 수 없지

만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된다.

5) 하봉림 고분군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하봉림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하봉림마을에 위치하며 낮은 야산이 마을을 包谷式으로 둘러싸고 있다. 서쪽편 해발 **40m** 정도의 낮은 구릉 위에 고분군은 위치하고 있다. 산의 정상부에는 민묘들이 있고 아래쪽은 대부분 감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 노출된 유구가 없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경작시 이곳에서 토기가 출토되어 봉림초등학교에 갖다 주었다고 한다.

봉림초등학교에 이 곳 출토지라고 기재된 장경호 **1**점과 단각고배**3**점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6**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유물들이었으나 **1998**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도 고배 구연부와 동체부에 해당하는 회청색 경질토기편 **2**점이 채집되었다.

6) 무쌍사지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에 위치하며, 시대는 미상이고 무쌍사지로 전해오는 위치에 일부 초석이 남아있으나 지금은 모은암이 세워져 있다. 일설에는 가락국 김수로왕이 그 모친을 위하여 창건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주위에 고려시대의 기와편과 청자, 분청사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다.

7) 본생철고분군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본생철마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본생철마을에 소재하며 봉림의 북쪽 오른쪽으로 무척산이 아주 높고 길게 뻗어 있다. 이 무척산의 정상에서 서쪽으로 본생철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에 철광석을 개발하던 곳이 많이 남아 있다. 금관가야지역의 철은 고대부터 이 지역에서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고분이 입지하고 있는 구릉은 감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된 상태이다. 마을의 북서쪽은 낙동강의 배후습지로 지금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마을 뒤쪽 낮은 구릉지에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비교적 많은 회청색 경질토기편들이 흩어져 있다. 그러나 지표상에 노출된 유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본 조사대상지역 중 나지구의 일부분이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본생철고분군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안양리 고분군 1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안양리 고분군은 김해의 최북단의 작약산과 낙동강변의 사망산 사이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대규모 고분유적이다. 안양리고분군 1은 생림면 생철리에서 1017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도요리와 창암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도요리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며 이미 개설된 도로 양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위치한다. 현재 도로 북쪽 첫 번째 구릉 곳곳에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잡목 속에 봉토의 흔적이 일부 보이지만 삼국시대 고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능선의 정상부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토기편이 일부 발견된다.

9) 안양리 고분군 2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안양리 고분군 2 유적은 안양소류지 북서쪽 야산에 위치한다. 소류지 뒤편 과수원에는 삼국시대 석곽의 유구석으로 생각되는 냇돌등이 곳곳에 모여 있고, 경질의 기대편, 고배편, 대옹편이 흩어져있어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암 마을의 동편에 인접하여 뻗어 있는 3번째 능선에도 삼국시대의 경질토기편과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이 다수 채집된다. 또한 이 유적은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에 위치하는 유적이며 공사로 인하여 전체 고분군 중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구릉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2002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 72기와 조선시대 민묘 2기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된 유물로는 장경호, 단경호, 유개고배, 개, 평저호, 유대장경호 등을 비롯한 토기류와 철도, 철부, 철촉, 철정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지표에서 민묘 부장유물로 보이는 청자편, 청동순가락과 젓가락, 청동합, 백자편 등이 파손이 심한 상태로 수습되었다. 본 유적의 성격은 5세기 후반대로 판단된다.

10) 마사리 북곡 고분군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북곡마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북곡마을에 위치하며 고분은 작약산의 북쪽으로 구릉의 정상부와 북쪽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현재 마을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남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곳에 마사왜성이 있다. 동쪽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안양천을 따라 소규모의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이 평야를 사이에 두고 안양리 고분군 1, 안양리 고분군 2, 본생철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비교적 보존이 양호한 편이나 구릉을 따라 민묘가 들어서면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도

굴된 흔적도 있다. 하부구조는 석곽으로 판단되고, 채집된 유물은 구연부 밑에 두조의 돌대가 있고 파수가 달린 컵형 토기편과 파상문이 새겨진 장경호 경부편 등이다.

11) 마현산성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02번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02번지에 위치하는 산성으로 가락국 수로왕때 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봉림리 뒷산에 위치하며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산성으로 동북부는 자연 그대로의 절벽을 이용하였고 남서부는 석축으로 대부분 붕괴되었다. 현재의 산성의 규모는 주위 약 600m, 높이 약 2m이다.

IV.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조사전 원경(남서→북동)

조사대상지역은 해발 702.5m의 무척산(無隻山)에서 분지상의 동쪽 평야 지대로 뻗어내린 말단부의 꼭부에 위치한다. 조사방법은 시굴조사에서 파악된 소토+목탄

+ 벽체편이 포함된 문화층까지 제토하여 전체 범위를 파악한 후, 동서-남북으로 그리드를 설치하여 피트별로 층위를 파악하며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트별 조사에서 노출된 건물지의 기단석열 등은 무너진 석재를 제거하면서 건물지의 원상과 중복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개별 수혈 및 기타유구는 적절한 고고학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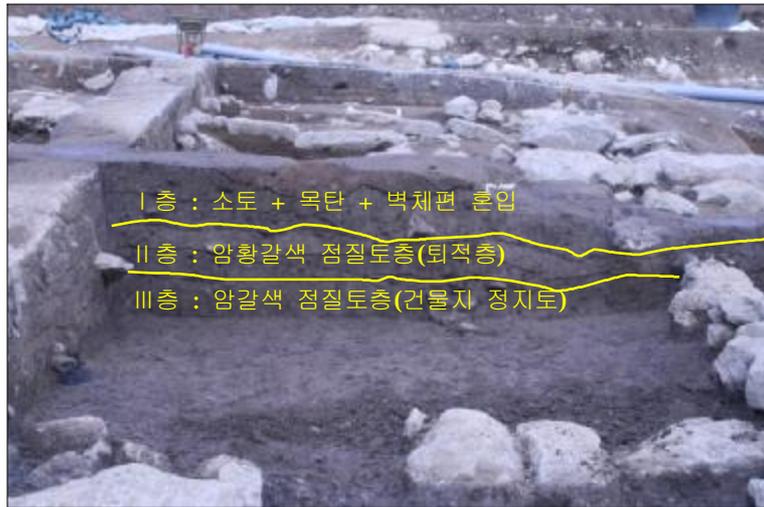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조사전 근경(서→동)

2. 층위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1트렌치의 남벽을 기준으로 상부의 근·현대경작층은 제거하고 그 아래부터 정밀조사를 시행하였다. 토층의 퇴적상태는 능선상부에 해당되는 조사대상지역의 북쪽부분에서 계곡부인 남쪽으로 퇴적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하고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토층의 퇴적은 상부에 10~20cm 두께로 소토알갱이와 목탄 그리고 높은 온도에 굽혀져 유리질화 된 벽체편이 혼입된 층(I층)-소량의 소토알갱이와 목탄 등이 혼입된 암갈색 점질토층(II층:건물지1 폐기후 형성된 퇴적층)- 건물지1의 조성을 위해 정지한 암갈색 점질토층(III층)으로 층위적인 선후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유구별 제특징에 따라 평면조사와 세부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명확한 상황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건물지, 건물지1이 폐기된 후 조성된 소성유구, 건물지2~5가 폐기된 후 조성된 수혈 및 소성유구 그리고 성격미상의 유구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검출되었다.



도판 3. 유적의 토층 퇴적상태(서→동)

1) 유구

(1) 기와무지

기와무지는 조사구간의 서쪽 경사면에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 동-서향으로 조성되었고 분포범위는 길이 460cm이며, 너비는 최대 292cm이다. 동쪽에 확인된 담장과 건물지4 상부에 퇴적된 상태로 이들 유구가 폐기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건물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기다란 溝狀의 형태를 보인다. 기와무지의 퇴적상태는 정연성은 보이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폐기시킨 양상이다. 기와무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대부분이 집선문계통이며 일부 창해파문도 소량 관찰된다. 기와무지 내부에서는 소량의 백자편도 출토되었다.



도판 4. 기와무지 노출상태(남→북)



도판 5. 기와무지 출토 기와류

(2) 수혈

①수혈 2호

수혈 2호는 조사구역 북쪽 경계 가까이에 위치한다.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조성되었다. 기반토인 풍화암반토

를 굴착하여 유구를 조성하였다. 규모는 전체길이 **216cm**, 너비 **122cm**, 잔존깊이 **37cm**이다. 내부토는 암갈색(Hue 7.5YR 3/4), 흑갈색(Hue 7.5YR 2/2) 점질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에 다량의 소토, 목탄이 포함되어 있다. 수혈 내부에서는 기와편을 비롯해 중앙부에 석재 **1**매가 세워진 채 놓여 있고 타원형의 철기 **1**점이 석재 앞에 세워져 있으며 **2**점은 기와편 상부에 붙여진 채 출토되었다. 바닥은 소성에 의해 붉게 피열된 흔적이 확인된다. 피열의 두께는 **3~5cm**이고 유구의 서쪽편이 집중적으로 불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기와의 문양은 집선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되는 유구로 추정된다.



도판 6. 수혈 2호 노출상태(남→북)



도판 7. 수혈 2호 출토 기와류

(3) 건물지



도판 8. 건물지 조사후 전경(북→남)

건물지는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지역의 북쪽 단애면 바로 아래에서 남쪽으로 조성되어 있다.

조사상에서 파악된 건물지는 총 5동으로 토층퇴적과 건물석열을 통해서 중복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건물지와 외곽으로 부분적으로 담장열도 잔존하고 있다. 조사된 총 5동의 건물지는 층위상으로 시기적 차이가 있으며 소성유구와 벽체편 및 소토, 목탄 등 소성 부산물이 폐기된 층(I층)을 기준으로 해서 선후관계파악이 가능하다. 조사된 건물지는 대부분 기단석 일부만 잔존한 상태로 사용된 석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역암제의 암반을 적당히 치석하여 사용하였다. 건물지상에 초석과 적심이 확인되지 않고, 폐기된 기와편 등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건물지3은 온돌시설 일부가 잔존하고 있어 주거시설로 추정된다. 그 외의 건물지는 후대의 경작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유실되어 그 원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성유구가 조성되기 이전에 축조된 건물지1은 서쪽편에 담장을 두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출입문을 지나 동서로 약 6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조성되었다. 현재 기단석은 길이 30~40cm의 역암제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1단만 잔존한다. 건물지1을 제외한 나머지 4동의 건물은 소성유구가 폐기된 이후에 조성된 건물지이다. 이 시기의 건물지는 북쪽의 단애면 아래에 평탄면조성을 위해 일부 굴착후에 조성하였다. 건물지의 조성순서는 건물지2→건물지3·4→건물지5로 판단된다.



도판 9. 건물지1 조사후 전경(서→동)



도판 10. 건물지3 온돌시설(남→북)



도판 11. 담장

건물지3에서의 온돌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북방향으로 2열이 잔존하며 작은 할석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길이 50cm 정도의 장방형 할석을 놓아서 마무리하였다. 할석열 안쪽 등에 불맞은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래 시설로 보인다. 이 시설의 북쪽 끝부분에는 배연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유실되었으며 이 부분에 피열된 흔적과 목탄 등이 잔존하고 있다.

담장은 북쪽 단애면 바로 아래와 동쪽에 축조되어 있으며 대부분 유실되어 2단정도만 잔존한 상태이며 사용된 석재는 건물지의 기단석과 동일하다.



도판 12. 건물지 2·5 전경(남서→북동)



도판 13. 건물지 2·5·북쪽담장(북→남)



도판 14. 건물지 3·4 전경(동→서)



도판 15. 건물지 5 축대 축조상태(서→동)

(4) 소성유구



도판 16. 소성유구 토층양상(남→북)

건물지5의 아래 층에 조성된 유구로 단애면의 토층상에서 소결된 부분이 드러나 있으며 일부분에 유리질화된 벽체편과 석재들이 집중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 유구의 조업활동 후에 폐기된 벽

체편 및 소토, 목탄 등이 남쪽편에 퇴적되어 있다. 현재 미조사 상태이다.

(5) 용도미상 유구(추정 삼가마)

건물지3의 서쪽편에 조성된 용도미상의 유구로 깊이 30cm 정도의 수혈을 파고 그 외곽에 규모 210×140cm로 길이 30~50cm의 할석을 사용하여 타원상의 유구를 축조하였다. 내부에는 5cm정도 규격의 할석이 가득차 있었으며 이 할석 전부와 유구의 석재 안쪽면 일부가 불에 맞은 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이 유구는 건물지의 폐기 후에 퇴적된 황갈색 점질사토를 굴착하고 소형의 삼가마가 이곳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판 17. 추정삼가마 전경(북동→남서)



도판 18. 추정삼가마 단면상태(동→서)

5) 출토유물

(1) 자기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기류는 청자·분청사기·백자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청자는 발·접시·개·완 등의 기종으로 유색은 연록색과 담록색, 회록색, 암록색이 대부분이다. 태토는 치밀한 양질의 회백색 태토와 잡물이 혼입된 조질 태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굽청자편(11세기 말)·청자앵무문접시편(12세기)·청자음각연판문대접(12세기)·청자소문개(12세기 중·후반)·청자압출양각국화문접시(12세기)·청자상감국화문대접(13세기 말~14세기 초) 등이 출토되며 특히 청자음각여의두문편(12세기)은 과주 혜음원지에서 출토된 여의두문과 유사하다. 시기는 유형굽청자편과 청자삼각국화문대접으로 보아 고려 중·후기로 추측되며 중심편년은 다수의 청자가 확인되는 12세기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질의 청자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에서 출토되지 않고 기와무지 또는 조사구역 동쪽의 담장지 상부에서 출토되는 등 건물지와 관련성을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음으로 분청사기는 발·접시·고족배 등의 기종이 수습되었으며 반상기가 대부

분이다. 유약은 회백색의 반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인화·귀얄수법으로 분장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세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소성이 덜 된 것들도 섞여 있다. 분장수법 등으로 보아 분청사기는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으로 편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백자는 발·접시·호·종지 등의 기종이 수습되었으며 분청사기와 같이 반상기가 대부분이다. 유약은 회색의 반·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청색을 띄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재질에 있어서는 연질백자와 경질백자로 나눌 수 있으며 연질백자는 관요의 기형을 닮고 있으며 경질백자보다 양질의 것이다. 굽은 대부분 17세기에 유행한 오목굽과 유사하고 모래비짐을 사용하는 등 당시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의 제작기법을 따르고 있어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로 편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19. 고려시대 청자류



도판 20. 고려시대 청자세부



도판 21. 조선시대 분청사기류



도판 22. 조선시대 백자류

(2) 기와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기와는 모두 평기와로 기와무지와 수혈유구 3호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와는 대부분이 편으로 원형은 알 수 없으나 잔존한 부

위로 볼 때 두께는 **2.0~2.5cm** 정도이다. 태토는 석립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고, 색조는 고화도로 소성된 경질의 회청색이 다수를 차지하며 회흑색, 적갈색도 일부 수습되었다. 기와의 측면 와도는 **1/3~1/2**가량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어 분할하였다. 기와 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 연철흔,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문양은 장판 타날의 선조복합문과 창해파문이 주류를 이루는데 어골문과 격자복합문, 세선형 선문도 소량 확인된다. 출토된 기와는 조선시대 문양의 특징인 장판 타날된 선조복합문이 주류를 이루며 창해파문도 소량 확인된다. 또한 공반된 유물인 백자의 편년이 **16~17세기**인 점을 미루어 보아 백자와 비슷한 시기이거나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조선 후기 기와로 판단된다.



도판 23. 조선시대 기와류



도판 24. 수혈 3호 내 출토 기와류

VI.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1. 이번 경남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건물지 5동과 조선시대 소성유구(가마) 1기, 수혈4기, 삼가마로 추정되는 유구 1기, 기와무지 1기 등 다수가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토층의 퇴적상태, 기단석열의 중복양상 등을 고려하여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최초 건물지1이 조성되어 사용되다 폐기된 후에 조선시대 소성유구가 축조되었으며 이 유구의 조업활동이 끝난 후에 건물지2~5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지가 폐기된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는 기와무지, 수혈 등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조성시기는 후대의 경작과 교란 등으로 정확한 시기비정은 어려우나 출토된 자기류 및 기와 등으로 감안하면 조선시대에 후기에 해당되는 건물지로 추정 가능하다.

3. 건물지에서는 초석과 적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와 또한 극소량만 출토되었

다. 건물지의 잔존상태와 기단석의 축조방법 등으로 볼 때, 관청과 사지와 같은 공공시설의 건물지와는 다른 일반 건축 가옥의 구조와 배치였음을 짐작케 한다. 각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부분 자기류와 도기, 용기류 등 생활용기인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건물의 조성시기는 소성유구(가마)를 기준으로 구별되며 출토된 자기류의 편년으로 참고하면 고려중기~조선시대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청자편 등이 상부 교란부분 등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시기는 차 후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조선시대가 중심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4. 건물지가 폐기된 후에 조성된 수혈유구는 내부에 강한 열에 의해 피열된 흔적과 목탄 등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생산유구로 보이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특히 수혈²의 내부에서는 철관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5. 이상의 결과, 특별히 보존처리해야할 유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철저하게 기록보존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공사진행 중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現場說明會 第100輯
경남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부지 문화유적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인 쇄 일 / 2007년 9월 4일

발 행 일 / 2007년 9월 5일

編輯·發行 /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